

“주민에게 행정이 버팀목 돼야”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대책 촉구

이해연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 5% 인하 등 10개 사안 군정질문

무주군의회(의장 박천주)가 황인홍 무주군수에 군정질문을 하며 각종 재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행정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연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6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 비율 5%로 인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읍·면으로의 업무조정 ▲3차 재난지원금 선제지급 ▲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수질관리에 적합한 조직운영 및 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을 재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이월 문제와 신규 사업 발굴 부진 ▲적극행정 독려 및 면책추진 ▲공영주차장의 증장기적 추진 ▲장례식장 접객실 증설 및 입식 전환 ▲마을 지원사업 건립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 10개 사안에 대해 무주군수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해연 위원장은 “무주군 농민들은 올해 불철 병해와 여름철 긴 장마, 용담댐 방류까지 자연재해와 인적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재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자부담 비율이 높아 가입하지 않는 농가가 많다”며 현행 15%인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비율을 5%까지 낮추는 것에 대한 무주군수의 입장을 질의했다. 사업 공공성과 수혜도, 효과나 명분에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무주군의 예산지원도 적정하다는 것이다.

이에 황 군수는 “올해 유난히 농작물 피해가 많아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심이 높아졌다. 무주군은 이미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국비지원을 50%에서 80%로 인상해줄 것을 도에 건의했다. 우선 내년에 준비 부담비율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농협에서 5%를 부담해 농가 자부담 비율을 종전 20%에서 10%로 줄이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진 보충질문에서 이해연 위원장은 무주군수가 연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에 대해 인근 지자체인 진안군, 장수군이 이미 3년째 자부담 비율 5%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2021년부터 시행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군정질문에서 이해연 위원장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경제가 또 다시 위축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무주군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3차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더 지급해 군민의 고통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무주군의 입장을 질의했다.

황 군수는 이에 대해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무주군은 앞서 1차 2인3,669명, 2차 2인3,417명의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움직였다.

이해연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이어진 군정질문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이 직접 추진하도록 사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이를 위

해 황인홍 무주군수가 업무 조정과 인사발령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해연 위원장은 “소규모 읍·면별 주민숙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지금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이다. 하지만 건설과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너무 과중한 나머지 현장에 나가 보지도 못하고 준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읍·면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수요에 맞게 할 수 있고 관리감독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분청 업무도 분산되고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에 대한 무주군수의 입장을 질의했다. 토목직렬 직원을 충원해 읍·면별로 한 명씩만 배치하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신규 공무원 채용이 여의치 않아 주민숙원사업의 읍·면 직접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내년에 시설(토목)직 충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원이 충원되면 업무 조정을 통해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민감독관 제도를 적극 살려 공사추진 과정에서 부실은 줄이고 주민과 소통해 완성도를 높여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연 위원장은 이외에도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 질문하며 무주군이 완성도 높은 행정서비스로 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촉구했다. 이번 군정질문은 그동안 안팎의 큰 관심을 받은 사안들에 대해 무주군의 행정수반인 군수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음으로서 논란은 불식시키고 집행부의 사업 추진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유승열 무주군의원, 반딧불 축제장 근처에서 서식지 조성 등 요구



무주군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만들고도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에 대해 특단의 활성화 대책이 없다면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주군은 우선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반영 등 자구책을 실시해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으면 매각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황인홍 군수에 공개질의 했다. 유승열 의원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은 사과체험 및 홍보를 위해 80억2,200만원이나 들여 조성했지만 지금은 매년 수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애플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활성화 대책을 물었다.

황 군수는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이 반딧불 사과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준공 후 예상과 달리 활성화되지 못해 기대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활성화를 위해 사과 수경장신을 지속적으로 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해 체험 가능한 작물, 약용작물 등을 식재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다양화 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전시체험관을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체험의 공간 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와 계획 등에 반영해 받쳐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열 의원은 최근 반딧불이 서식지가 무관심 속에 줄어들고 용담댐 방류로 인해 완전히 파괴된 점을 상기하며 반딧불 축제의 상징성을 살리고 관광객 접근성이 우수한 무주읍 당산리 압수저수지에 반딧불이 서식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유승열 의원은 “지금까지 반딧불 축제에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 보여주기가 행사를 해왔다면 이제부터 반딧불이 보존과 서식지 보호정책을 적극 펼쳐서 환경축제로서의 참 의미를 실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대책으로 반딧불 축제장 인근에 있는 당산리 압수저수지 일대를 반딧불이 서식지로 만들면 축제 완성도와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는 예상이다.

이에 대해 황 군수는 검토 결과 제한요소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황인홍 군수는 “압수저수지 일원은 애반딧불이가 거의 서식하지 않고 복원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만 탐사객의 만족도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자연 속에서 반딧불이를 체험할 수 있는 탐사방식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유승열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반딧불이가 조금이라도 서식한다면 복원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며 재차 서식지를 조성해줄 것을 강조했다.

유승열 의원은 이어 무주 추모의집 봉안당 이용률이 점차 상승해 머지않아 봉안당 증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무연고 묘지를 정비해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주군에 호국원이 생기면 군민 호국의식 함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포화상태에 이른 임실 호국원을 대체하고자 무주군이 호국원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황 군수는 봉안당 이용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고 영동군, 금산군 등 인접 지역에서도 무주 추모의집 안치수요가 있어 내년에 636기의 안치당 증설을 계획했다며 봉안당 증설은 물론 무연고 묘지 정비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호국원 유치는 “보훈처에서 정책적으로 표적조성은 하지 않고 봉안당으로만 안치한다는 계획이며 임실호국원 외 다른 지역에 표적이나 봉안당을 조성할 계획이 아직 없다. 다만 보훈처의 정책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호국원 유치를 대응하겠다”며 대안으로 태권도인을 위한 봉안당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승열 의원은 이어 한 때 높은 실적을 올리며 소득에 크게 기여했던 깻잎 작목이 무주군의 지원중단에 신음하고 있다며 영농지도를 포함한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농협 친환경유통사업단 CA저장고에 사과 입고 시작

한여름에도 신선하고 아삭한 무주반딧불사과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은 무주반딧불사과의 유통을 맡고 있는 무주농협 친환경유통사업단이 수확 철 사과 맛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CA(Controlled Atmosphere)저장고에 사과를 입고하기 시작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CA저장은 저장고내 산소의 농도를 1/10로 줄여 농산물의 호흡을 지연시켜 저장 중 품질변화를 최소화시키는 기술로, 기존 저온저장에 비해 저장 기간을 1.5배 이상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상품성을 유지시킬 수 있어 부가가치와 농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무주농협 친환경유통사업단에 17.5㎡ 규모의 CA저장고 5개 동을 시범 설치했으며, 이곳에 사과 12톤을 저장하고 농업과학기술원, 무주군농업기술센터와 저장 전·후의 중량 비교를 진행해 감도를 검사와 맛, 냄새, 색깔 등의 품질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전북도 토지정보 업무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진안군은 지난 11일 전라북도가 실시한 2020년도 토지정보업무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15개 시군구(전주시 2개구 포함)를 대상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토지관리·지적공간정보·지적재조사·도량형주소 등 5개 분야 11개 영역의 토지·지적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전북도는 매년 토지정보업무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해 표창함으로써 관련 분야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왔다.

군은 올해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비하여 철저한 홍보와 사전준비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고, 보증인수당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보증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전북 군부 1위’ 쾌거

2018년 4등급 → 2019년 3등급 → 2020년 2등급으로 꾸준히 상승

진안군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도내 최고등급인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전북 군부 1위의 영예를 안았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권익위에서 실시하며 매년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경험에 있는 군민과 공직자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하여 1~5등급으로 청렴도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진안군은 전국 군

부인 7.79점을 훨씬 웃도는 8.57점을 받아 전국 군부 상위 30% 우수 기관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청렴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그 결과 2020년도 청렴도 등급 상승(3등급→2등급)이라는 고무적인 성과를 얻게 됐다. 또한 행정서비스 대상자의 평가로 결정되는 외부 청렴도 평가 부분에서도 향상된 결과를 받았다.

이는 공직자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스스로 청렴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내부 공직자들의 청렴 이행에 대한 끊임없는 모니터링으로 내부적 정화활동을 가진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평가 결과는 청렴이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자 의무임을 전 직원이 인식하고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를 추진하여 행복지수 도내 1위에 빛나는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장수군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내년 5월 31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

용하는 자로 자진신고 시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는 허가신청서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작성해 군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